

# 2017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 국어 영역 ·

### 정답

1	④	2	②	3	①	4	①	5	⑤
6	①	7	②	8	④	9	④	10	⑤
11	⑤	12	⑤	13	④	14	②	15	①
16	④	17	⑤	18	②	19	③	20	④
21	①	22	⑤	23	⑤	24	③	25	③
26	①	27	④	28	⑤	29	③	30	⑤
31	①	32	②	33	①	34	⑤	35	④
36	②	37	③	38	①	39	④	40	②
41	④	42	②	43	②	44	③	45	③

### 해설

#### [1~5] 화법

##### 1. [출제의도] 발표 계획의 적절성 파악하기

발표자는 『모네 특별전』 관람을 앞두고 청중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인상화 화가인 모네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청중이 핵심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다른 상황에 빗대어 설명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① 모네의 작품을 화면으로 보여줌으로써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② 청중에게 ‘색채 분할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③ 발표를 시작하면서 청중에게 ‘어려분 ~ 있나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확인하고 있다.

⑤ 청중에게 모네의 그림을 감상할 때 도움이 되도록 그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겠다고 말함으로써 발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2. [출제의도] 발표 내용 파악하기

발표 내용에 따르면, 모네는 사진의 발명 덕분에 물체에 반사된 빛에 따라 변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재현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전의 화가들이 사진 기술을 이용하여 순간을 포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네 이전의 화가들이 사진 기술을 활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모네는 빛에 따라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대상의 인상을 연속적으로 그린 화가라는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모네의 <인상, 해돋이>가 당시의 비평가들로부터 외관상 마부리가 덜 된 그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모네가 19세기 이전의 사실주의 화가들과 달리 사물에는 고유색이 없다고 보았다는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모네가 착시 현상을 주는 ‘색채 분할법’을 도입하여 그림을 그렸다는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출제의도] 읽은 내용 및 전략 이해하기

‘찬성 1’은 입론에서 경험 많은 선생님들께서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참가자의 재능이나 역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 우수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선발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찬성 1’은 ‘심층 면접 방식’의 장점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찬성 1’은 입론에서 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③ ‘반대 1’은 입론에서 논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지 않았다.

④ ‘반대 1’은 입론에서 새로운 방식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한 후 기존 방식의 장점을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⑤ ‘반대 1’은 입론에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을 때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을 뿐 상대측 견해의 일부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

##### 4. [출제의도] 말하기 전략 추론하기

[A]는 찬성 측 주장에 대한 반대 신문이다. ‘반대 2’는 심층 면접 방식이 참가자의 재능이나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찬성 측 발언의 일부를 언급한 후, 면접관의 주관에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심층 면접 방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반대 신문에서 모호한 표현을 문제 삼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 2’가 상대측 발언 내용 중 모호한 표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찬성 2’는 반대 신문에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찬성 2’는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용은 했지만 이는 상대측 주장의 근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새로운 방식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에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반대 신문에서 상대측 자료 내용의 정확성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료의 출처를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5. [출제의도] 토론 내용 분석하기

반대 측은 심층 면접 방식을 반대하고 기존 방식인 서류 심사 방식을 옹호하는 토론자이다. 그런데 찬성 측에서 ㉘를 도입하면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지닌 학생을 효과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것은 ㉘가 아니라 ㉙이다.

**[오답풀이]** ① 찬성 측은 입론에서 심층 면접 방식이 참가자의 재능이나 역량을 직접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㉘를 옹호하고 있다.

② 찬성 측은 입론에서 서류 심사 방식이 계획서의 내용만을 살펴보고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참가자의 재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㉙을 반대하고 있다.

③ 반대 측은 입론에서 서류 심사 방식이 담당 부서에서 마련한 타당한 평가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주장하며 ㉙을 찬성하고 있다.

④ 반대 측은 입론에서 심층 면접 방식이 면접 경험이 부족한 저학년에게 불리하다고 말하며 ㉙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 [6~10] 작문

##### 6. [출제의도] 작문의 특성 파악하기

(가)에서 시를 멀리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글을 쓴다고 밝혔으므로 가은 적절하다. 또한 (다)에서 시를 읽은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시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나은 적절하다.

##### 7.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시가 우리의 삶에 스며 있다는 내용은 글의 흐름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스며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꿀떡대고 버둥거리며’에서 시구를 활용하였다.

**[오답풀이]** ① 글의 흐름을 고려하였고 ‘천천히 받아들이는’에서 시구를 활용하였지만, 설의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았다. ‘만들어지는 것이구나’는 영탄적 표현이다.

③ ‘꽃게가 알을 깨안듯이’에서 시구를 활용하였고 ‘내면화하는 것은 아닐까’에서 설의적 표현이 드러났지만, 글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았다. ‘시인이 동경하는 미지의 세계’는 [A]의 앞부분에서 언급하는 일상의 삶과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글의 흐름에 자연스럽지 않다.

④ 글의 흐름을 고려하였고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설의적 표현이 드러났지만, 시어(구)를 활용하지 않았다.

⑤ 글의 흐름을 고려하였고 ‘울컥울컥 쏟아지는’에서 시구를 활용하였지만, 설의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았다. ‘드러내는 것이구나’는 영탄적 표현이다.

##### 8. [출제의도] 잘못된 표현 고쳐 쓰기

서술어 ‘주었다’에 호응하는 주어가 ‘시는’이므로 적절하다. 따라서 ‘받았다’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앞뒤 내용을 고려할 때, ‘그리고’보다는 내용의 전환을 나타내는 ‘그런데’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피동 표현인 ‘생각되었지만’의 주어가 ‘나는’이기 때문에, 능동 표현인 ‘생각했지만’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막연하고’는 ‘허물없이 아주 친하다’라는 뜻이므로, 문맥을 고려할 때 ‘뚜렷하지 않고 어렵듯하다’를 의미하는 ‘막연하고’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참신’은 ‘새롭고 산뜻함’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참신성’은 의미가 중복된 표현이다. 따라서 ‘새로운’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

##### 9. [출제의도] 작문 계획의 적절성 파악하기

(가)에 ‘한낮의 소식통’에 소개되는 이야기가 선정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한낮의 소식통’이 방송되는 시간이 ‘점심시간’이라고 알려 주고 있다.

② ‘한낮의 소식통’에 보낼 수 있는 내용들로 ‘건의 사항’, ‘친구와 나의 우정’ 등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언급하고 있다.

③ 점심시간을 알차게 채울 수 있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효과에 해당한다.

⑤ 방송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나와 있다.

##### 10.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자료2]를 보면, 김△△ 교수가 건강한 생활을 위해 주기적인 실내 환기를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㉘의 뒷부분을 보면, 반마다 환기를 담당하는 학생을 정해서 일정한 시간에 환기를 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실내 환기를 규칙적으로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문맥을 고려할 때 ㉘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편이 낫다.

#### [11~15] 문법

##### 11. [출제의도] 형태소에 대한 정보 확인하기

실질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인 경우(사과)도 있고 의존 형태소인 경우(막-)도 있으므로 실질 형태소가 모두 자립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1문단)이므로 이를 쪼개면 뜻이 사라진다(2문단).

② ‘를’은 조사이므로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며 단어이다. 또 ‘먹었다’는 ‘먹-', ‘-었-', ‘-다’라는 의존 형태소만으로 단어가 형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③ ‘사과’, ‘를’은 형태소 하나가 단어 하나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④ ‘를’, ‘-었-', ‘-다’는 문법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 12. [출제의도] 형태소 분석하기

<보기>의 문장에서 형태소는 '그, 가, 풀, 밭, 울, 맨- , 밭, 로, 뛰-, -ㄴ-, -다'로 분석할 수 있다. 형식 형태소에는 어미, 조사, 접사가 있는데(4문단), '-ㄴ-, -다'는 어미이고 '가, 울, 로'는 조사이다. '맨-'은 다른 말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는 성질을 지니는 접사이다. 따라서 형식 형태소는 모두 6개(가, 울, 맨-, 로, -ㄴ-, -다)이다.

- [오답풀이]** ① 다른 말을 넣어서 뜻이 달라진다면 그 단위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풀', '밭'은 형태소이다.  
 ② '맨-'의 유무로 단어의 뜻이 달라지므로 '맨-'은 형태소이다.  
 ③ '-ㄴ-'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뜻이 있으므로 하나의 형태소이다.  
 ④ 자립 형태소는 문장에서 다른 말이 없어도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이므로(5문단), <보기> 문장에는 자립 형태소가 4개(그, 풀, 밭, 울)이다.

**13. [출제의도] 음운 변동 이해하기**

'국민'→[공민]에서 'ㄱ'이 'ㅇ'으로 변하였는데, 'ㄱ'은 파열음이고 'ㅇ'은 비음이므로 조음 방법이 변하였다. '물난리'→[물탈리]에서 'ㄴ'이 'ㄹ'로 변하였는데, 'ㄴ'은 비음이고 'ㄹ'은 유음이므로 조음 방법이 변하였다.

- [오답풀이]** ① '국민'→[공민]에서 파열음 'ㄱ'이 'ㅇ'으로 바뀐 것은 뒤 자음 '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바뀐 음운 'ㅇ'은 유음이 아니라 비음이다.  
 ② '물난리'→[물탈리]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뀐 '유음화'가 일어났다.  
 ③ '굳이'→[구지]에는 잇몸소리 'ㄷ'이 'ㄱ' 모음 앞에서 쉼입천장소리 'ㅈ'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④ '굳이'→[구지]에서 'ㄷ'이 'ㅈ'으로 변하였는데 'ㄷ'은 잇몸소리이고 'ㅈ'은 쉼입천장소리이므로 조음 위치가 변하였다. 그러나 '물난리'→[물탈리]에서는 'ㄴ'이 'ㄹ'로 변하였는데 둘 다 잇몸소리이므로 조음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

**14. [출제의도] 문장의 주성분 파악하기**

'되었다'는 주어와 보어가 필요한 서술어이다. ㄴ에서 '올해'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로서 '되었다'가 꼭 필요로 하는 성분은 아니다.

- [오답풀이]** ① ㄱ에서 '찍었다'는 '동생'의 동작을 나타내므로 서술어이다.  
 ③ ㄱ에서 '찍었다'는 동작의 대상이 필요한 말이며 이때 대상은 '사건'이므로 '사건'이 목적어이다. '되었다'는 동작의 대상이 필요하지 않은 서술어이므로 ㄴ에는 목적어가 없다.  
 ④ ㄱ에서 '찍었다'의 주체는 '동생'이므로 '동생'이 주어이다. ㄴ에서 '되었다'의 주체는 '언니'이므로 '언니'가 주어이다. '대학생'은 '되었다'가 주어 외에 필요로 하는 보어이다.  
 ⑤ ㄱ에 쓰인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이고, ㄴ에 쓰인 주성분은 주어, 보어, 서술어이다. 따라서 주성분의 종류는 세 가지이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의문문 유형 이해하기**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부테(부처가)'이므로 주어가 3인칭이다. 또 '누가, 언제' 등과 같은 물음말이 없으므로 '-가', '-르'와 같은 '아'형 어미를 사용해야 한다.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네(너는)'로서 주어가 2인칭이므로 '-ㄴ다'를 사용해야 한다.

**[16~21] 독서(기출)**

**<출전> 「체지방이란 무엇인가」(재구성)**

개관: 이 글은 체지방에 대해 설명하고 여러 가지 체지방 측정법을 소개하고 있다. 인체에 체지방이 많이 축적되면 비만이 될 수 있으므로 체지방 조절이 필요

한데, 이를 위해서는 체지방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체지방 측정법에는 '피부두겹법', '수중체중법', '생체 전기저항 분석법'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체지방 측정에 활용되는 생체 전기저항 분석법은 근육과 지방의 전기저항 차이를 이용하여 체지방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16. [출제의도] 서술 방식 파악하기**

이 글에서는 체지방을 측정하는 방법 세 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 [오답풀이]** ① 체지방에 대한 정의는 드러나지만, 정의에 대한 상반된 관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② 체지방이 수행하는 역할은 드러나지만, 그것을 단계별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③ 체지방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조절 방법이나 그 방법의 장단점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⑤ 체지방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나 그것을 비판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7.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5문단에 따르면 체중은 체지방과 체지방의 합으로, 체지방과 체지방의 전기저항 차이를 통해 산출하는 것이 아니다.

- [오답풀이]** ①, ③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④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피부두겹법'은 피하지방 두께를 재어 체지방을 산출하므로 내장지방을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수중체중법'은 인체의 전체적인 체지방량을 얻을 수 있지만 신체 부위별 체지방의 구성이나 비율을 구할 수 없기에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을 구분해서 측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둘 사이의 공통점은 내장지방을 별도로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오답풀이]** ① '생체 전기저항 분석법'을 통해 체지방을 측정할 때 유의할 점이다.  
 ③ '수중체중법'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④ '피부두겹법'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고, '수중체중법'은 연구 목적 외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⑤ '피부두겹법'은 측정자의 숙련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수중체중법'은 정확성이 높지만 측정자의 숙련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다.

**1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체지방량이 많을수록 수중 체중은 줄어든다.(5문단) A와 B는 체중이 같으므로 체지방량이 더 많은 A는 B에 비해 수중 체중이 더 많이 줄게 된다. 그러므로 수중 체중이 더 많이 나가는 사람은 A가 아니라 B이다.

- [오답풀이]** ① BMI는 체중(kg)을 신장의 제곱(m<sup>2</sup>)으로 나누어 구한다.(3문단) 체중이 같다면 신장이 더 작은 사람이 BMI가 높다. 그러므로 B보다 BMI가 더 높은 A가 신장이 더 작다.  
 ② 체중은 체지방과 체지방의 합이다.(5문단) 그러므로 A보다 체지방량이 더 적은 B가 체지방량은 더 많다.  
 ④ BMI는 18.5~22.9를 정상 체중으로 판정하므로(3문단) BMI가 20.4인 B는 정상 체중이다.  
 ⑤ 체지방률은 체중에서 체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2문단) 두 사람의 체지방률을 구해 보면 A는 27%(16.2/60×100), B는 22%(13.2/60×100)이다. 남성의 경우 체지방률 25% 이상을 비만으로 판정하므로 비만인 사람은 A이다.

**20.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전류가 흐를 때 세포 외 공간은 수분이 대부분이어서 전기저항이 매우 작다. 전류가 세포 내 공간을 흐를 때 근육세포에서는 전기저항이 비교적 작고, 지방세포에서는 전기저항이 크다. 그러므로 지방세포이든 근육

세포이든 '세포 내 저항'이 '세포 외 저항'보다 크다.

- [오답풀이]** ① a는 세포 내의 모든 통과하므로 50kΩ 이상의 고주파 전류이다.  
 ② 전기저항이 지방세포에서는 크고 근육세포에서는 작기 때문에 지방보다 근육에서 '세포 내 저항'이 작게 나타날 것이다.  
 ③ 세포 내의 수분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주파 전류인 a를 비롯한 다양한 주파수의 전류를 보낼 필요가 있다.  
 ⑤ 땀을 많이 흘리면 체내 수분의 양이 줄어 이전보다 전기저항이 커진다. 그러므로 세포 내의 모든 통과한 후의 전류의 값이 감소하게 된다.

**21.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①의 '이루는'은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를 조립하여 하나로 만드는'의 뜻을 가진 '구성(構成)하는'과 바꾸어 쓸 수 있다.

- [오답풀이]** ② 달성(達成): 목적인 바를 성취함.  
 ③ 양성(養成): 가르쳐서 유능한 사람을 길러 냄.  
 ④ 완성(完成): 완전히 이룸.  
 ⑤ 합성(合成): 두 가지 이상이 합하여 한 가지 상태를 이룸.

**[22~25] 문학(현대소설)**

**<출전> 김정환, 「인간단지」**

개관: 이 글은 부당한 억압으로 고통 받던 음성 나환자들의 투쟁과 비극적인 결말을 그린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는 부당한 권력에 고통 받는 나약한 민중들의 삶을 다루고 있으며, 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고발하고 있다. 음성 나환자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인 '인간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중신 노인을 비롯한 '자유원' 사람들의 삶의 의지가 현실의 장벽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은 현실의 문제를 보다 강렬하게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22.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우중신 노인이 면사무소 직원이나 경찰과 나눈 대화, 우중신 노인이 '메기아가리'와 나눈 대화, '인간단지' 사람들과 인근 부락민들과의 다툼 등을 통해 음성 나환자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현실감 있게 보여 주고 있다.

- [오답풀이]** ① 공간적 배경은 '인간단지'를 건설하려고 한 산속이다. 그러나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시대적 분위기를 드러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었다.  
 ③ 제시된 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④ 사건 전체의 입체성은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거나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병치할 때 주로 생기는 효과이다. 제시된 부분은 사건이 시간 순으로 전개되며 당시 사건의 병치도 없다.

**23.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그까짓 거러지들의 불평이나 위협 따위에 원년도 깜짝할 필요가 없다.'는 표현을 통해 우 노인의 언행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메기아가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4. [출제의도] 발화 의도 파악하기**

우 노인은 헌법에 규정된 '거주의 자유'를 근거로 들어, 그곳에 거주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면사무소 직원의 요구가 부당함을 환기하고 있다.

- [오답풀이]** ① 우 노인은 면사무소 직원과 경찰을 부정적인 인물인 박 원장과 꼭 같은 부류로 보았으므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② 방문객들이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우 노인은 방문객들의 요구가 타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뿐 싸움 의향이 없음을 전하려는 것은 아니다.

⑤ 출생 신고와 마찬가지로 거주지 이전의 경우에도 신고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은 하고 있으나, 그것을 상대방이 자신에게 적극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5. [출제의도] 의역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우 노인이 산속에 '인간단지'를 건설하려고 시도한 것은 부당한 현실의 폭력에서 벗어나 음성 나환자들만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부당한 권력의 행태를 세상에 알리려는 의도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26~29] 문학(고전시가)

<출전> (가) 「시조(時調)의 내용상 특징」(제구성) / (나) 윤선도, 「만흥(漫興)」 / (다) 정철, 「훈민가(訓民歌)」

개관: (가)는 사대부들이 지닌 의식의 양면성(정치 현실에 대한 이념과 자연 동경)과 제도지기의 문학관이 강호가류와 오륜가류라는 두 부류의 시조 창작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더불어 강호가류와 오륜가류의 주요 특성을 밝히고 있다.

(나)의 「만흥(漫興)」은 자연 속에서 유희자적하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삶을 노래한 전 6수의 연시조이다. 각 수에서는 속세와 자연을 대비하여 안분지족(제1수), 안빈낙도(제2수), 일천한흥(자연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제4수), 군은예찬(제6수)의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다)의 「훈민가(訓民歌)」는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백성들에게 유교적 덕목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전 16수의 연시조이다. 백성들을 교화하려는 의도와 전달 효과를 고려해 평이한 시어와 명령형, 청유형 어미 등을 활용했다. 제시된 작품에서는 군신유의(제2수), 효행실천(제4수), 봉우유신(제10수), 도적질과 동냥질 금지(제14수)라는 주제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26.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사대부들이 강호가류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이상적 조화를 지향했다는 것은, (가)의 2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2문단 첫 번째 문장에 강호가류가 시조 가운데 작품 수가 가장 많다고 했으므로, 사대부들이 오륜가류 창작에 더욱 힘썼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에서 사대부들이 수기와 치인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며 시조를 창작했는가는 알 수 없다. 심성수양(수기)과 백성 교화(치인)를 모두 추구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강호가류와 오륜가류 모두 효용론적 문학관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오륜가류는 백성 교화를 위해 창작된 시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7. [출제의도] 의역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제4수에는 속세를 버리고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비길 곳이 없어라'는 자연에서 즐기는 한가로움 흥취를 비교할 데가 없고, 이 흥취가 가장 좋다는 의미이다. 정치 현실이 혼탁하다는 인식은 이 표현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띠집'을 금쇄동에서 은거했던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② '보리밭'과 '꽃나물'은 소박한 음식이므로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보여 주는 소재라는 것은 적절하다.

③ 자연 속에서의 삶 외에 '여남은 일'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보기>의 내용과 연결하여 어지러운 세상을 떠나서 자연 속 삶에 만족하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본 것은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군신의 도리를 잊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이해하기

㉔에는 치인의 도가 담겨 있지만, 이상적 상황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부정적 상황을 가정하여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임금은 하늘이고 백성은 땅이라는 신분 차이를 드러낸 부분이다. 뒤에 이어지는 백성의 도리를 언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것뿐이라는 표현을 통해 효의 실천을 권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벗이 나의 그른 일을 다 이르러(충고하려) 한다는 내용이다. 직언하는 벗의 행위를 통해 봉우유신의 덕목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못 입어도 남의 웃을 빼앗는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일상생활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므로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과 효과 이해하기

'혼자 었다 머그리'는 '혼자 어찌 먹겠는가'의 의미로 설의적 표현이다. 명령의 어조는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살진 미나리'는 중국 고전 「여씨춘추」에 살진 미나리를 백성들이 임금에게 바치려 한다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풍작을 임금의 은덕으로 보고 이에 보답하려는 백성의 뜻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교화의 의도가 담겨 있다.

[오답풀이] ① '남들'은 자연에서의 삶을 선택한 화자를 비웃는 속세 사람들을 의미하고 '하얌'은 화자 자신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② 속세에 나아가지 않고 자연에서 은거했던 고사 속 인물들인 '소부 허유'를 활용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초장과 중장에 '비록 ~마라'를 반복하여 유교 윤리를 강조하므로 적절하다.

[30~33] 독서(인문)

<출전> 「한국철학 콘서트」(제구성)

개관: 이 글은 성리학에서 인간과 세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와 '기'에 대한 서경덕, 이황, 이이의 입장을 소개하는 글이다. 서경덕은 '이'와 '기'가 하나이며 세계에 드러나는 것은 '기'뿐이라는 입장이고, 이황은 '이'와 '기'가 각각 존재하면서 작용하므로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이는 '이'와 '기'가 각각 존재하지만 둘은 하나로 붙어 있다는 입장이다.

30. [출제의도] 서술 방식 파악하기

제시문은 '이'와 '기'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 사람의 철학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기'가 하나라고 본 서경덕의 관점, '이'와 '기'는 하나가 아니며 둘은 철저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이황의 관점, '이'와 '기'는 각각 존재하지만 하나로 붙어 있다는 이이의 관점이 드러난다.

[오답풀이] ① 철학적 용어 '이', '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그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있지는 않다.

② 철학적 용어 '이', '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③ 철학적 용어 '이', '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묻고 답하는 형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현실을 해석하는 철학적 용어 '이', '기'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의 등장 배경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31. [출제의도] 핵심 내용 파악하기

서경덕은 '이'와 '기'는 하나이며 세계에 드러나는 것은 '기'뿐이라고 하였다(2문단). 이황은 '이'와 '기'는 하나일 수 없으며 이 둘은 철저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3문단).

[오답풀이] ② ㄱ-서경덕은 '이'가 '기' 속에 있으면서 '기'가 작용하는 원리로 존재할 뿐 독립적으로 드러나거나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문단). ㄴ-이황은 '이'의 발동에 따라 '기'가 작용하거나, '이'가 발동하지 않고 '기'만 작용한다고 보았다(3문단).

③ ㄱ-서경덕은 세계에 드러나는 것은 '기'뿐이라고 보았다(2문단).

④ ㄱ-서경덕은 '이'가 '기' 속에 있다고 보았으므로(2문단) '기'가 '이' 속에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ㄴ-이황은 생체적 욕구와 욕망을 '기'라고 보았다(3문단).

32.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이'는 현실의 모습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면 이것은 '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가 잘못된 것이므로 '기'로 나타난 현실의 모습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문단). <보기>는 군포를 면제받기 위해 양반이 되는 길을 모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언급하며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기'로 드러난 현실, 즉 쉽게 양반이 될 수 있는 현실의 모습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학문과 수양을 통해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이황의 주장이다(3문단).

③ 현실에 내재하는 원리는 '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리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이'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 성리학에서 '이'는 만물의 근원이므로(1문단), 만물의 근원이 되는 원리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이 가 할 수는 없다.

④ 음양의 작용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서경덕의 입장에 가깝다(2문단).

⑤ 천도는 '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천도에 맞는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황의 입장에 가깝다(3문단).

33.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내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의 내부에 들어 있음'이다. '내부적으로 미리 정함'은 '내정(內定)'이다.

[34~37] 문학(고전소설)

<출전> 작자 미상, 「정비전(鄭妃傳)」

개관: 이 작품은 주인공 정성모(정비)가 여러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뛰어난 활약을 펼쳐 황실을 구하는 과정을 그린 영웅소설이다. 중국 당나라 황실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면서 능력 있는 여성의 성공이 그려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성 주인공이 남성도 감당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을 통해 당대 여성의 사회 참여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34. [출제의도] 사건의 전개 양상 이해하기

비연은 직접 정비의 행동을 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귀비의 지시대로 말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양정은 정공의 딸이 죽은 줄로만 알았다.

② 태자가 황상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장면은 제시문에서 찾을 수 없다.

③ 이 시랑은 '노신'이라고 자신을 낮추고 친구의 딸인 정비를 '낭랑'이라고 높인다. 또한 '황상과 태자'에게 모셔 가겠다고 하므로 정비가 태자비라는 사실을 안다고 볼 수 있다.

④ 정비는 비복에게 황성의 소식을 전해 들었으므로 스스로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

35. [출제의도] 인물의 발화 의도 파악하기

정비는 반역을 일으킨 양씨 가문에 대해 분노하며 '한칼로 죽여' 발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상대의 능력에 놀라워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비연의 행동은 양귀비의 계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㉔은 황상의 금금증을 유발하려는 말이라 할 수 있다.

- ② 양귀비는 정비가 용포를 지어 황상에게 바친 행위 속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짓말을 하여 황상을 분노하게 만든다.
- ③ 정비는 이 시랑이 자신의 천리마를 팔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함께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 ⑤ 자신의 대장을 죽인 정비의 행동에 분노하며 정비를 '구상유취(口傷乳臭)한 놈'이라고 앞잡이 보고 있다.

36. [출제의도] 인물의 갈등 양상 이해하기

'갈등 양상1'에서 황상은 용포를 짓는 정비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다. 하지만 양귀비의 만류로 진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양귀비의 말만 믿고 정비에게 분노한다.

- [오답풀이] ① '갈등 양상1'에서 양경은 정비가 태자비라는 위세로 가문을 해칠 것을 두려워하여 양귀비와 계교를 꾸민다.
- ③ '갈등 양상2'에서 양씨 가문은 반란을 일으켜 황상의 권위를 빼앗으려고 한다.
  - ④ '갈등 양상2'에서 양춘은 반란이 천명에 따른 행위를 내세워 정비를 대립하고 있다.
  - ⑤ '갈등 양상2'에서 정비는 삼강오륜을 내세워 반란 행위가 죄가 됨을 질타한다.

37.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찾기

천자와 태자는 반란군에게 포위되어 양식마저 끊어진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한자성어는 '적진에 싸여 외롭고 곤란한 형편'을 의미하는 '사면초가(四面楚歌)'이다.

- [오답풀이] ① 결조보은(結草報恩): 은혜를 잊고 갚는다.
- ② 동상이몽(同床異夢):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 ④ 전화위복(轉禍爲福):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
  - ⑤ 호가호위(狐假虎威):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린다.

[38~42] 독서(사회)

<출전> 「경제학 강의」(계구성)

개관: 이 글은 한 나라의 생산량을 잘 보여 주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국내순생산(NDP), 국민총생산(GNP)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내총생산'의 개념을 '생산', '총', '국내'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국내순생산과 국민총생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금전적 가치를 합하여 계산하고, 국내순생산은 국내총생산에서 자본재의 감가상각을 빼고 계산하며, 국민총생산은 한 나라의 국민과 그 나라의 기업들이 생산한 생산량 전체를 합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한 나라의 생산 활동 수준과 장기적 저력 등을 평가할 수 있지만,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생산은 오로지 시장 가격으로만 계산되기 때문에 영세한 자급농과 가사 노동 등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38.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3문단에서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진술만 있을 뿐 감가상각을 산출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진술은 확인할 수 없다.

- [오답풀이] ②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6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3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국내총생산은 생산량의 부가 가치의 총합을 말한다.

농부는 중간 투입물 없이 7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므로 7억 원의 부가 가치를 창출했다. 그리고 방앗간 주인과 제과점 주인은 각각 5억 원과 8억 원의 부가 가치를 창출했다. 그러므로 부가 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한 생산자는 제과점 주인이며, 국내총생산은 20억 원이다.

40.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총생산량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전적 가치를 통해서만 산출된다. 따라서 시장에 내다팔지 않아 시장 가격을 계산할 수 없는 영세한 자급농의 농산물과 시장 밖에서 생산되어 시장 가격을 계산할 수 없는 주부의 가사 노동은 총생산량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41.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장기적인 저력이 더 높게 평가되려면 국내총생산보다 국민총생산이 더 많아야 한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저력이 더 높게 평가되는 국가는 A국이다.

- [오답풀이] ① 국내총생산과 국내순생산의 차이를 보면 A국의 감가상각은 10조 원, B국의 감가상각은 30조 원이다.
- ② 인구가 동일하고 국민총생산이 A국이 더 크기 때문에 국민총생산의 1인당 생산량은 A국이 더 많다.
  - ③ '한 나라 국경 안의 부가 가치 총합'이란 국내총생산을 의미하므로 국내총생산이 더 큰 국가는 B국이다.
  - ⑤ A국과 B국의 국경 내 자국민과 자국 기업의 생산량이 동일하므로, 국민총생산이 더 큰 A국이 외국에 사는 자국민과 외국에 있는 자국 기업의 생산량이 더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

42.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①의 '(가치가) 떨어진다'와 ②의 '(주가가) 떨어져서'는 모두 문맥상 '값이나 수준 따위가 낮아지거나 내려가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 [오답풀이] ① 어떤 상태나 처지에 빠지다.
- ③ 병이나 습관 따위가 없어지다.
  - ④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 ⑤ 명령이나 허락 따위가 내려지다.

[43~45] 문학(현대시, 고전문학)

<출전> 김용택, 「들국」 / 박제가, 「백화보서(百花譜序)」

개관: 「들국」은 그리운 임에 대한 애뜻함과 이별의 상황에 대한 막막함을 노래한 작품이다. 임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를 자연물과 대비하여 부각하고 있으며, 화자 자신을 '들국'과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백화보서」는 '김 군'이 그린 「백화보」라는 그림책을 예찬한 서문이다. 여기서 글쓴이는 김 군을 사례로 '미처야[靡] 미친다[及]'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43.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나)는 김 군이 화원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만든 「백화보」의 서문이다. 여기서 글쓴이는 김 군의 구체적 행적을 제시하며 그의 기예와 그림책이 매우 훌륭하다고 예찬하고 있다.

- [오답풀이] ① (가)는 임과 이별한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어조가 시종일관 유지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현실을 초월하려는 의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가)의 '역새꽃'에 '하얀 손짓'이라고 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나)에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 ⑤ (가)에는 '하얀'이 화자의 정서라는 관념을 구체화한다고 할 수 있으나 (나)에서는 색채어를 찾을 수 없다.

44. [출제의도] 의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초생달'은 '그대 얼굴같이' 보이는 자연물이다. '초생달'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당신'을 비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화자와 동일시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단풍'과 '물빛'은 늦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이다.
- ② '하얀 손짓'은 이별한 임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마른 지푸라기'와 '허연 서리'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막막한 심정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⑤ '막막한 어둠'은 그것을 강화하는 구실을 한다.
  - ⑥ '서리밭에 하얀 들국'은 임과 이별한 부정적 상황에서도 애타게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자연물이다.

45. [출제의도] 핵심 내용 파악하기

김 군은 손님이 와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을 만큼 '꽃'을 관찰하는 데 열중한다. 따라서 김 군은 '꽃'에 대한 '편벽된 병'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김 군은 꽃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업적물인 「백화보」를 내놓게 되므로, 「백화보」는 '꽃'에 대한 편벽된 병의 결과인 '벽의 공훈'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풀이] ①, ④, ㉠과 같은 벽의 공훈을 얻기 위해서는 ㉡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즉 편벽된 병이 필요한 것이다.
- ② 김 군이 ㉢에 대한 '편벽된 병'을 극복하기 위해 ㉠을 가꾼 것이 아니다.
  - ⑤ ㉠을 탐구하는 김 군에 대한 사람들의 비웃음이 ㉠과 같은 벽의 공훈을 이끈 것은 아니다.